창사 62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m.kjdaily.tv ▶m.kjdaily.com 광고문의 062)650-2070

제7736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음력 5월 20일)

“자치분권으로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해야”

대신협, 국회 세미나…국민 공감대 확산 적극 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조기 입법화 의지 다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광주매일신문 등 전국 유력 지역일간지 28개사가 회원사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개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려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또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과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 주요 참석 인사들은 함께 ‘자치분권 손 팻말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신협 소속 지역 일간지 대표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온전한 자치분권 및 법제에 대한 여론 확산과 추동력 확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합적 대응,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다원적 대응의 조화가 보여준 정책 효율성은 다시금 ‘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보충성 원리의 당위와 명분이 입증됐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과정에서 간단없이 추구돼야 할 핵심의제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의제는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완성돼야 할 과제”라며 “21대 국회의 책무가 막중한 상태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채택하고, 20대 국정전략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입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박정·김영배·김승수·한병도·허영·민형배·양기대·박성민·권명호·박재호·박수영·김용판(무순)국회의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과 각계각층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신협은 자치분권 세미나에 앞서 국회 의정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신입회원사로 경북매일신문·중부일보 가입을 승인했다.

또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자치분권 입법화 공동 대응과 유튜브 방송 공동채널 구축 등 신규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김진수 기자

李시장 대시민 호소문 발표 9일 오전 코로나 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마친 이용섭 시장이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광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애리 기자

광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거리두기 3단계’ 고심

만12개월 영유아도 확진…지역·연령 불문
광주고시학원 감염원 사우나 연결고리 찾아

광주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다. 12개월 유아부터 90대 노령까지 거주지·나이 불문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2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달 27일 이후 1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합계 145명(오후 6시기준)이다. ▶관련기사 3·6면

이날 광주고시학원 관련 1명이 추가됐으며, 전날 밤 사이엔 무려 11명이 늘었다. 특히 지역에서는 최연소인 생후 12개월 남아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그동안 깜깜이 였던 광주고시학원과 SM사우나와 연결고리가 밝혀지기도 했다. 광주 134번(50대·여)은 광주고시학원 강사로 최근 여러차례 SM사우나에 방문했고, 사우나 매점 직원 광주120번과 자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120번은 광주사랑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4명(27일)→4명(28일)→3명(29일)→12명(30일)→22일(7.1일)→6명(2일)→8명(3일)→16명(4일)→7명(5일)→6명(6일)→8명(7일)→15명(8일)→1명(9일)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만 12개월과 어린이집 원생 등 10대 미만 3명, 10대 2명, 20대 4명, 30대 8명, 40대 16명, 50대 27명, 60대 31명, 70대 14명, 80대 3명, 90대 4명이다. 초창기 50-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최근 40-50대로, 또 젊은 층으로 전파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두 자리수 이상의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하거나, 두 자리수 숫자가 안 되더라도 특별한 경우 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되지만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 공공 다중시설 운영은 중단되고 민간에서도 고·중 위험시설의 경우 운영할 수 없다.

학교도 현재는 인원을 축소한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나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해야 한다. 사실상 지역사회의 ‘셧다운’ 국면이다.

시 관계자는 “3일간 한 자릿수였던 확진자가 어제 두 자릿수로 올랐으니 일단 추이를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대책도 총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어제 오전 공관서 배낭 메고 나선 후 연락두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9일 경찰에 들어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형사,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나 오후 7시 현재까지 박 시장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설도 돌았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날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시가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 40분께 공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원래 이날 오후 4시 40분에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 시장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市, 국가직 9급 시험 코로나19 예방 총력

11일 광주 1만2천121명 응시

광주시가 오는 11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2020년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과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3월28일 예정했지만,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시험은 광주지역에서 1만2121명이 지원해 27개 시험장, 654개 고사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장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험 종사자와 응시자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안전관리대책을 보면 먼저,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별 수용 인원을 25-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다. 시험실 입실과 퇴실은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김종민 기자

기획-‘경전선 철길따라 문학은 흐르고…’ ▶14면

제7회 무등산 가사문학 백일장

광주매일신문은 청소년들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문학적 장르로 계승 발전시키고호남 선비들의 정신문화의 보고인 가사문학의 현대적 부흥을 위해 ‘제7회 무등산 가사문학(歌辭文學)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이번 무등산 가사문학백일장은 조선시대 호남 선비들의 대표적인 문학양식 가사문학을 통해 무등산에 깃든 가사문학의 원류를 재조명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 발굴과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운문 (시), ②산문 (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오월 광주의 진실, 무등산과 오월 광주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야 하며 창의성이 중요함)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전국 청소년 (중·고생)
– 원고분량 : 운문(1인당 3편), 산문(1인 1편, 분량 2천 ~ 3천자 내외)
– 응모기간 : 6월 1일 ~ 7월 31일까지
– 입상자 발표 : 8월 21일 무등산 가사문학 백일장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광주매일신문 무등산 가사문학 백일장 홈페이지 (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5)
기 타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교명, 학년을 기재할 것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 최 광주매일신문 · C21
후 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담양군 화순군 가사문학발전진흥위원회 조선이공대학교